

04

제 3 발 제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장효안(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¹⁾

장효안(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역사 및 현황

1) 협동조합

- 19세기 중반 공제조합으로 시작한 역사를 바탕으로, 1900년에 생긴 데자르덴 서민금고를 시작으로 한 신용협동조합과 1922년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현재까지 이어져 각각 데자르덴 그룹과 라쿠페데레라는 퀘벡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양대 주축이 되었음.
- 1930년~45년 주택, 식품, 임업과 장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하였으며, 1960~80년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음.
- 협동조합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전체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인 CQCM(퀘벡의 상호공제와 협력을 위한 위원회)이 1940년 설립되고 현재 대정부협상 조직으로 역할하고 있음.
- 퀘벡의 협동조합 현황은 크게 금융협동조합(공제협동조합 포함)과 비금융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부류의 협동조합은 모두 CQCM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구체적인 협동조합 규모는 다음과 같음

퀘벡주 협동조합 현황



출처: 협동조합국 프레젠테이션

- 총 3,300개 협동조합에 880(총인구 800만)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규모 1,730억(186조원), 연간 매출액 27조원의 경제규모를 가지며 9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규모 및 경제적 역량면에서 금융협동조합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1) 본 보고서는 2013년 5월 11일~22일까지 진행된 본 센터의 해외연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방문 녹취 및 사전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음.

○ 퀘벡주에는 재정부 산하에 협동조합국이 있으며, 협동조합과는 비금융협동조합만을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지원내용은 후술.

○ 비금융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다섯 가지로 구분됨

협동조합 구분	비중	주요 사업 내용
소비자협동조합	56%	소비자조합원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 제공. 주교, 소매업, 장례업, 케이블 TV, 교육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생산자협동조합	12%	생산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농식품, 식품생산, 택시, 공동구매그룹(purchasing groups)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동자협동조합	10%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산림가공, 나무 가공업, 엠블런스, IT,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노동자주주협동조합	2%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회사 주식의 일부를 소유,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음식가공업, 제조업, 뉴테크놀로지, 교통업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대협동조합	20%	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특징이 있음. 법으로 총 3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이용자(소비자), 노동자, 후원자(support member)), 이 중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홈서비스, 사회적서비스, 관광업 등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음.

2) 사회적경제

-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6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1996년까지 퀘벡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는 거대 협동조합을 지향.
- 그러나 1996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1995년 퀘벡 여성운동계가 주도한 ‘빵과 장미’의 행진이 계기가 되어 정부, 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재정위기와 실업극복 전략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함. 이 TFT가 1999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서 현재의 상티에가 탄생함.
- 상티에는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협동조합 진영에서는 주로 연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티에에 가입되어 있으며, 금융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등 큰 규모 협동조합은 가입하지 않았음.
-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7,000개 이상의 조직에서 12만 5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17조원으로 퀘벡 GDP의 8%를 차지함(2002년 규모).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지원체제

1) 주정부 및 연방정부

주정부 재정부 산하 협동조합국

- 1963년 창설 이후 협동조합 투자계획(1985) 및 협동조합개발정책(20003)을 수행
- 2005년부터는 CQCM과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CQCM과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을 개발 및 지원하고 CQCM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세제 혜택
 - 협동조합투자계획(Cooperative Investment Plan):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감면
 - 소득세 환불 유예제도(Deferred Tax Rebate): 배당금을 협동조합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 배당금을 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과. 계속 재투자된 상태에서는 세금부과 없고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과
 - 둘 중 한 가지 세제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 협동조합 개발정책
 - 6가지 사업목표
 - 10년 이내 20,000개 일자리 창출
 - 주요지표 향상(판매, 자산, 조합원수, 신설된 협동조합수, 시장진입률 등)
 - 향후 5년 간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25% 상향조정하여 협동조합 발전 가속화
 - 규모가 큰 협동조합을 확장하고 큰 협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촉진, 협동조합진영의 생존율을 높이고 유지
 - 이를 달성하기 위해
 - 법률을 정비하고
 - 협동조합의 자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세제혜택, 협동조합 규모별 자금조달 방식 구분)
 - 협동조합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CDR과 연계하여 강화하고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소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협동조합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 CQCM 관련 지원
 - 2005년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약 50억원의 재정 지원
 - 기금조달 방식: 45억(정부지원) + 대규모 협동조합 기부금(5.6억)
 - 지원내용: CDR 보조금(32억) + CQCM 유지운영(3억) + CQCM 섹터별 연맹 보조금(16억)
 - 인수합병 기술 그룹(Le Groupe coop Releve) 운영자금 지원: 협동조합의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그룹 지원 명목으로 2013년 1월부터 향후 3년 동안 지

원. CQCM에서 관장함.

○ 지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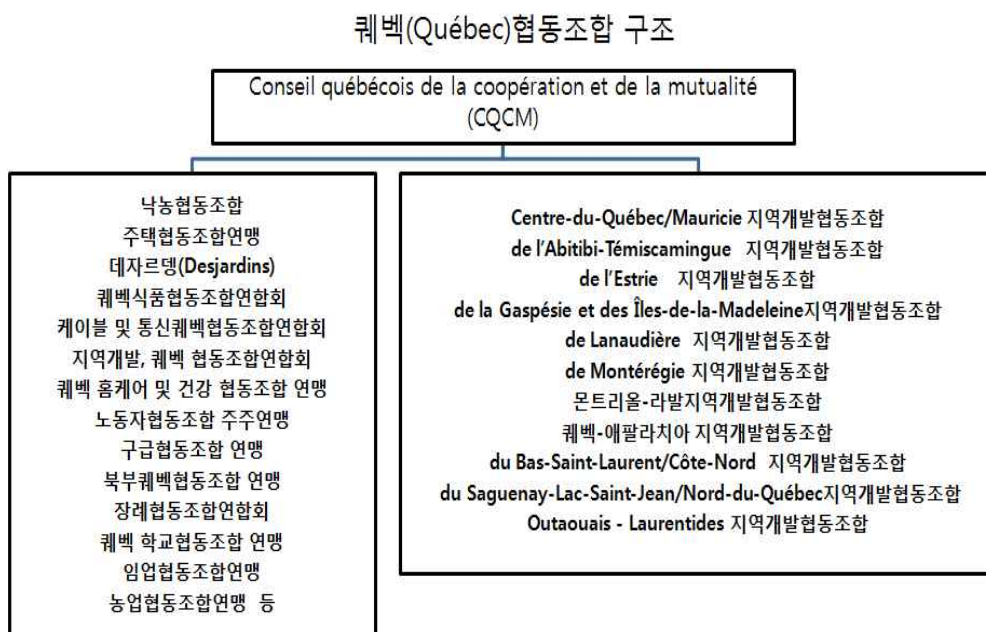
- 2013년 현재 지난 3년 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60%가 퀘벡에서 설립(퀘벡 인구는 캐나다 전체 23%)
- 1999~2009년까지 협동조합에서 일자리가 37.3% 상승. 같은 시기 퀘벡 전체의 일자리 상승률은 15.5%임
- 기업 생존률도, 5년차와 10년차 기업을 비교했을 때 기존기업에 비해 2배정도 높음

2) CQCM과 샹티에

- 협동조합의 대표 진영(CQCM)과 사회적경제의 대표진영(샹티에)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CQCM은 협동조합만의 연합회인 반면 샹티에는 가입을 원하는 모든 조직에 오픈되어 있는 포괄적 조직임. 전통적 협동조합은 CQCM에, 연대협동조합 등 신생협동조합은 샹티에에 가까움.

CQCM

- 라발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교수의 주도로 1940년 설립하고 1980년 레비에 정착. 분야별, 지역차원에서의 협동조합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으며, 지역에서 벌어졌던 협동조합 간 경쟁을 조정해야 할 목적 등을 토대로 설립
- 15개의 분야별 협동조합이 연맹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CDR이 17개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CDR연맹도 15개 분야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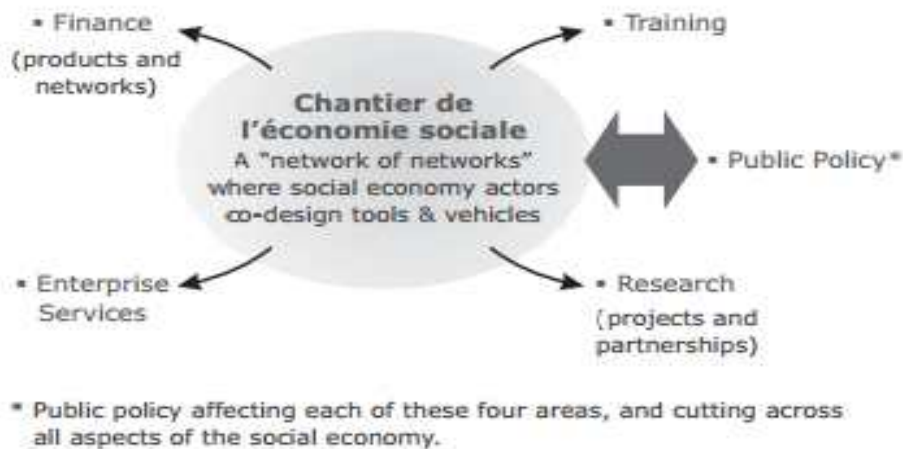
출처: CDI 해외연수 자료집(2013)

- 현재는 2009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행동계획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퀘벡 뿐 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협동조합 현안을 다룸. 3대 행동강령으로 청소년 교육, 협동조합 연구, 퀘벡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정하고 있음.
- 총 18명의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CDR, 인수합병기술그룹 등 현장에 대한 정부자원의 전달체계이며, 이사회는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 수행
- 이사회는 금융(4), 농업(2), 소비(6), 노동(3) 및 지역개발(3) 협동조합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 등 3명의 외부참여자도 포함되어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년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이전까지 정부가 지역 CDR 등을 직접지원하던 것에서 CQCM을 창구로 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CQCM이 현장을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상티에

- 상티에의 기원은 세계여성행진의 기원이기도 한 1995년 4월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에서 비롯됨. 빈곤 및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며 여성 850명이 10일 간 진행함.
- 1996년 이 운동이 계기가 되어 정부, 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정부, 재계, 노동계의 3자 협상구도의 역사는 거의 40년에 이르나, 시민사회의 참여는 이 때 처음으로 이루어짐.
-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6개월 전에 구성된 TFT 중 하나였던 상티에는 퀘벡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계획을 소개하는데 계획의 이름은 [대담한 연대(Daring Solidarity)]로 사회적·환경적·문화적 필요를 수용하는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계획을 제안하며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티에에 2년의 시간이 주어짐.
- 달성목표를 초과한 상티에는 여러 네트워크와 사회운동계의 논의에 따라 일시적 기구에서 NPO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됨. 형식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
- 2013년 현재 12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약10억으로 6억 5천은 정부로부터, 3억 5천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함.
- 상티에는 처음부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이 과정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나고 소통하는데 활동을 주력했음.
- 일반기업의 민주적인 운영 · 사회적경제 영역의 존재를 퀘벡정부 등 공적부문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으며, 민간·기업·지역개발주체·사회운동진영 등 다양한 진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함.

Diagram 1: The Social Economy In Québec – An Integrated System of Social Innovation



출처: Mendell(2009):46

- 금융, 훈련, 기업지원, 연구조사 등 상티에는 직접지원보다는 이상의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논의의 장’의 역할.
- 정책적으로는 공공정책의 공동구축(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은 상티에에 의해 보편화된 핵심개념으로 정책적(municipalities), 지역적(CDEC, CLD)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한 토론(multi-stakeholder dialogue)문화와 숙고하는 조정문화(deliberative regulatory culture)를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는데 크게 역할 했음. 이를 멘델 교수는 ‘문화적 이동(cultural shift)’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때 CDEC, CLD를 지역차원의 ‘제도적 토론 공간’으로 설정하여 지역적 차원의 지원을 보편화시킨 것 역시 상티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상티에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써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섹터별 논의의 공간으로 이해하는게 타당하며, 상티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형식의 파트너십, 새로운 사회적 이니셔티브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실험정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선례의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런 바탕에서 RISQ, Fiducie 등과 같은 연대금융이 형성되었음.

3) 지역개발 지원 조직

- 지역개발 프로젝트 지원의 세 주체: CDR, CDEC, CLD.
- 협동조합 진영은 재정부(협동조합국) – CQCM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며, 지역차원에서 CDR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을 관장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진영은 국토 및 지역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Regions and Land Occupancy) – 상티에 협조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며, CDEC와 CLD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음.

CDR(지역개발협동조합)

- 지역 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법률상 협동조합을 취하며 지역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로 기능함
- CDR을 통해 설립된 개별 협동조합들이 CDR의 주요 의사결정 당사자가되는 구조.
- 협동조합 초기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며,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는 크게 3가지 목적을 수행함. 협동조합 초기 설립에 필요한 협동조합적 지원 외에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설립협동조합 당사자에게 연계해주는 지원역할을 수행함.
- 현재 17개 행정구역에 총 11개 CDR이 설립 되었으며, 1,2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아우르고 있는데, 11개 CDR에 전체 6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음.
- 이들은 모두 CQCM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일부는 상티에에도 가입되어 있음.

CDEC(지역(regional)개발공사)

- 지역개발을 위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비영리조직으로 1989년 낙후된 몬트리올 서남부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13개의 CDEC가 운영되고 있음.
- 주정부·연방정부·몬트리올 정부의 혼합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실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동운동,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예) RESO의 네트워킹 시스템(콜레주). 지역의 10개 분야(제조, 서비스 및 새로운 경제, 자영업, 금융업, 사회적경제 기업, 노동조합, 문화, 건강 및 교육기관, 기타 지역사회 인사, RESO직원)에서 17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RESO의 운영책임을 맡음. 오래 걸리고 잘 작동되지 않던 시스템이었지만 ‘빈곤’이라는 공공의 적으로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고,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소라고 RESO의 사무총장은 진단하고 있음
-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교육, 상담, 기업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수행했으나 현재 기업 지원은 CLD를 통해 연계하고 있음. CDEC는 CLD의 모델로, 갈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금융이 개별 기업에 연계되는 통로구조임. (CLD도 마찬가지.)

CLD(지역(local)개발센터)

- 지역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1998년부터 정부가 급속하게 확장한 비영리 조직임.
- 현재 퀘벡 내 120개 조직이 있어 기초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CLD의 주요 사업은 창업 지원, 사업확장 지원, 사업유지지원, 지역사회투자,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일반기업은 100%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대출지원이며 (금리 8%), 사회적경제기업은 부분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

- CLD는 자체 자금이 있어 기업지원의 seed money로 사용하는데, CLD의 투자는 상당한 수의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예) CLD de Quebec, 2012년 16억을 지역 기업에 투자, 총 200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기업투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예산 중 일부를 지역 사회투자로 사용(CLD de Quebec의 경우 예산의 15%가량 투자). CLD de Quebec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CLD의 지원을 받은 바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열린포럼을 열어 6개월 동안 지역사회 현안에 우선순위를 매기며 2012~2017년 CLD 5개년 계획을 수립
- 다만 퀘벡 협동조합 전문가 제라드 페론은 'CLD de Quebec은 CLD 중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조직이나 많은 CLD는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첨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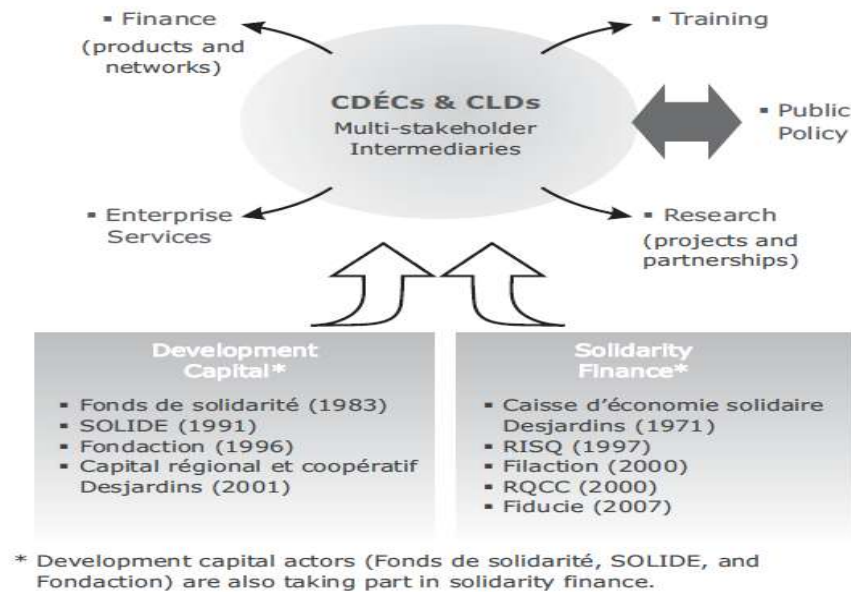
3. 금융 지원 시스템²⁾

1) 2007년 이전까지의 상황

- 주 금융제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면서 주 금융제도는 사업계획과 마케팅전략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했음.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존재했으나 공급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발전 전략속에서 금융이 고민되지 못했음.
-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발전전략 관점으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음.
- 이상이 2007년까지의 상황이었으며, 사회적경제진영에 제공되는 총체적인 제공시스템은 아래와 같음.

2) Marguerite Mendell(2009). *Financing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Makingwaves Vol.20 No.3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Marguerite Mendell & Nancy Neamtan(2008).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보조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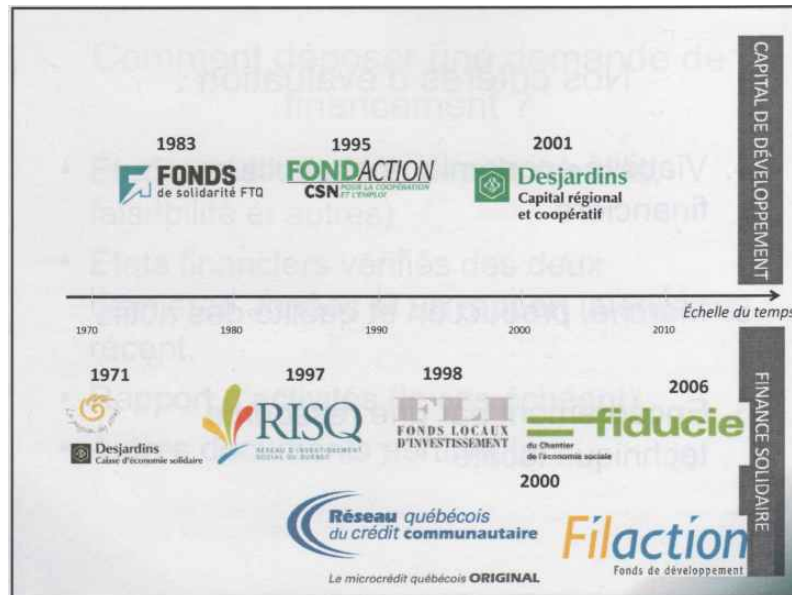
Diagram 2: Solidarity Finance in Québec – A Systemic Approach



출처: Mendell(2009):47

- multi-stakeholder space(다중이해관계자 공간) 상티에는 섹터별로, 지역별로는 CDEC와 CLD에서 섹터 및 지역의 필요를 캐치
- CDEC와 CLD가 지역에서 다중이해관계자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하면서 훈련, 기업서비스, 연구조사 및 금융지원을 수행.
- 두 가지 금융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발전자본과 연대금융임. 발전자본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를 우선으로 하며, 연대금융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함.
- 퀘벡에서 연대금융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양대 노동조합(FTQ & CSN)임.
 - 퀘벡의 경제위기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가장 큰 노동조합인 FTQ에서 1983년 Fonds de solidarite라는 투자기금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퀘벡의 약 60% 기업이 Fonds의 투자를 받았음. 2008년 현재 7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4조에 달하는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00,000개 이상으로 집계됨.
 -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CSN에서 Fondation이라는 투자기금을 조성,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혹은 유지하고, 2008년 현재 자산규모는 636억 규모임. (Mendell & Neamtan(2008):5)
- 1996~2006년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00억을 넘으며, 1996년 280억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150억이 투자 되었음.
- 연대금융의 측면에서는 퀘벡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조합인 데자르맹의 1971년 연대금고가 첫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 TFT와 상티에를 통해 급속하게 확장되었음. RISQ와 Fiducie를 상티에에서 관장하고, Filactuion은 CLD에서 관장.
- CDEC와 CLD를 통해 금융지원이 연계된다 하더라도, 금융과 관련한 조치를 조화롭게 하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구조로써, 무엇보다도 연대금융이 주변적이거나 부분적인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네트워킹은 필요했음. 그리하여 2009년 금융네트워크 CAP Finance 생성. 아래는 CAP finance 구성 금융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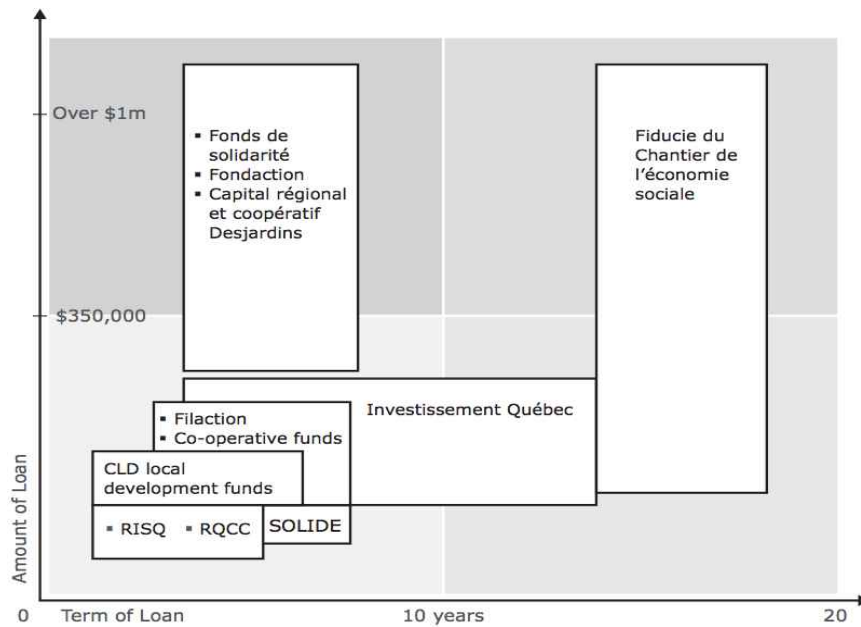


출처: RISQ 프레젠테이션

- 대출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단기, 중기 상환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빚을 양산함. 앞서 말한 7,500억원의 투자도 중단기 투자로 부채성 금융지원이었음. 결국 주식을 팔아 투자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기자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2) 피두시(Fiducie)의 탄생

- 2004년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1,300억원을 조성하여 1,000억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화를 위해 사용하고, 300억원은 역량강화 및 조사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이 과정에도 샹티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이 중 300억이 퀘벡주로 할당되고 할당된 300억 중 228억을 사용할 수 있게됨. 이 기초자금이 피두시 조성을 위한 다른 자금을 유치하는데 핵심적으로 기능함
- 이후 퀘벡 양대 노동기금인 FTQ와 CSN에서 각각 120억과 80억을 피두시에 투자하고,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퀘벡정부기금인 Investissement Quebec에서 100억을 투자함.
- 2007년까지 총 538억의 기금을 형성 '인내자본', 유사자기자본기금(quasi-equity fund)성격의 투자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계획 실행 및 부동산 명목 등에 투자되고 있음
- 15년까지 무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며, 5,000만원~15억까지 대출이 가능함. 그러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 전체 금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출처: Mendell(2009):49

- 이후 피두시는 혁신적이고 주요한 금융중개인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53개 프로젝트에(75.5%가 부동산에 사용) 157억이 투자되었고, 프로젝트 당 평균 투자액은 2억 9천 만원임.
- 피두시의 투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유치된 전체 투자금액은 1219억원이며, 1,323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였음.
- 이외에 새로운 기획 중 하나로, 2010년 8개 지역조직에 공동건물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을 투자함. 공동건물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가양성,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및 데이케어센터, 지역발전센터, 청년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조직이나 아동보호센터, 홈케어서비스, 출산전문기관,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대체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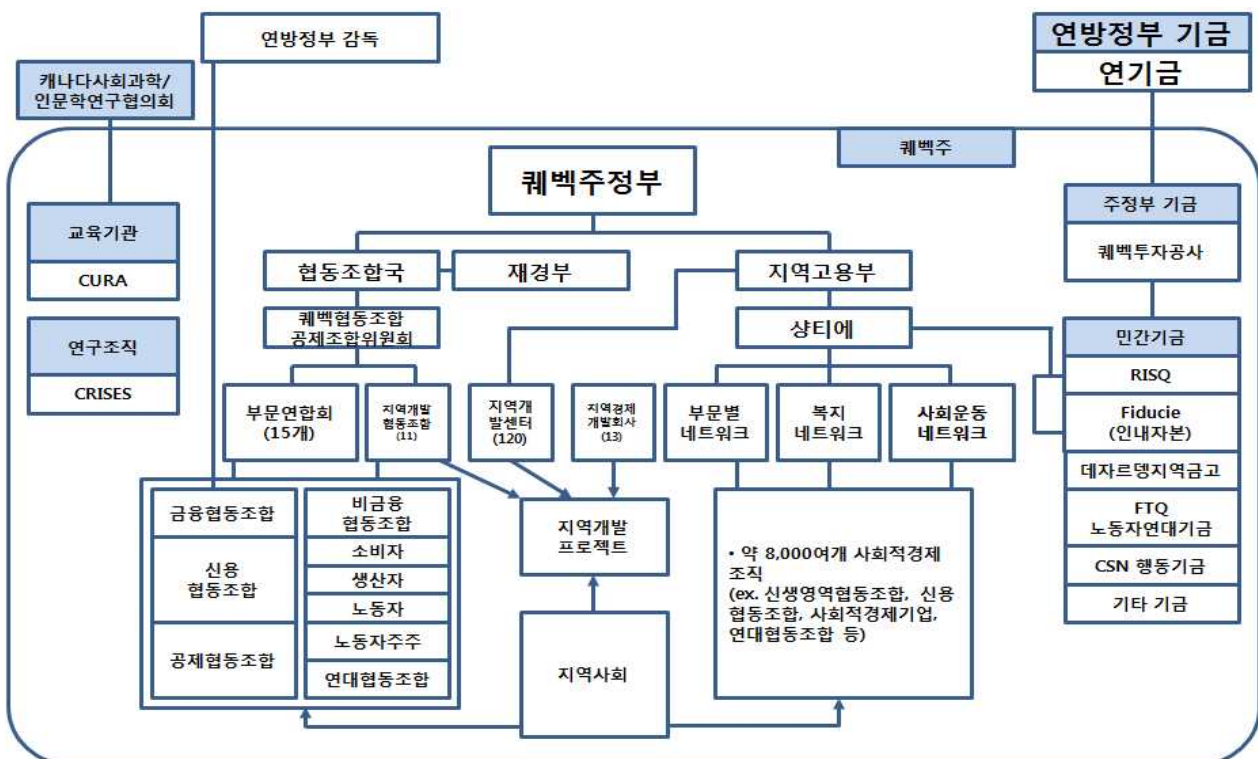
4. 퀘벡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특징

협동조합 진영과 사회적경제 진영의 관계

- 협동조합은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데 중심을 두고 활동하며 규모화 및 글로벌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경제 진영은 경제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델 등에 관심을 가지는 등 전 사회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음.
- 규모화된 협동조합의 연맹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단일이해관계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은 작은 규모의 다중이해관계자를 모델로 하는 신생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런 연유로 연대협동조합의 다수는 샹티에에 가입되어 있음

- 퀘벡 내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은 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두 진영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 관계로 회자되며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개발’ 아젠다에 있어서는 협력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발달된 섹터별·지역적 통합 네트워크와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출처: 전라북도(2012). '전북형 협동조합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2012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 배낭연수 결과보고', p.34 일부 수정

- 협동조합 진영 및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CQCM과 상티에를 중심으로 하여, 전자는 협동조합 전체를 포괄하고 상티에는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여 대변하고 있음. 이들은 각각의 섹터별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에서는 협력적인 성격을 보임
- 협동조합 진영은 지역차원에서의 지원을 CDR을 통해 수행하는데, CDR은 지역에서 초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구체적인 기업적 지원은 CLD가 수행하고 있음.
- CDEC는 민간의 힘으로 지역을 개발한 특징적인 사례로 처음 CDEC에서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을 수행하다가 CLD를 통해 기업지원을 특화하고 있음. CDEC와 CLD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구조에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지역의 의제를 찾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CLD는 보다 기업지원적 측면이 강함.

- CDR-CDEC-CLD 세 조직이 각각 협동조합 지원, 지역민 참여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기업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 진영의 경우 ‘공공정책의 공동구축’이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핵심으로 보고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참여의 토론문화를 보편화시키고자 함. 이는 탑다운 방식도, 보텀업 방식도 아닌 ‘수평적이고 대화적 접근(horizontal and dialogic approach)’의 성격을 갖는 급진적 문화이동의 성격을 가짐³⁾.

민간 이니셔티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유형의 기금

- 퀘벡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기금에 있음. 1996~2006년까지 10년간 사회경제적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00억이 넘으며, 2005년 한 해에 1,150억이 투자되었음
- 특히 눈여겨볼 특징은 노동운동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인데, 발전자본의 시작 및 확장을 두 노동기금이 담당했으며, 연대금융의 확장에서 큰 기여를 하였음. fiducie의 설립은 ‘공공정책의 공동구축’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fiducie와 같은 연대금융의 경우 1:9의 투자유치를 가지고 왔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연대금융은 한 기업의 프로젝트의 35%이상을 투자할 수 없어 투자손실의 분산효과도 있으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함. 현재 연대를 위한 CAP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3) Marguerite Mendell & Nancy Neamtan(2008).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p.16.